

인천서 휘발유 탱크로리 화재

인천에서 16톤 탱크로리 자동차 1대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27일 오후 3시20분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서구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6톤 탱크로리 차량 1대에서 불이 났다.

불은 탱크로리 자동차의 양 옆에 주차돼 있던 또 다른 탱크로리 자동차와 승합차로 옮겨 붙어 절반 이상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에 따라 탱크로리 운전자 홍모씨가 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휘발유를 싣고 가다 자동차 바퀴 부분에서 소리가 나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데 차체 바닥에서 불길 이 치솟았다”는 홍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8>